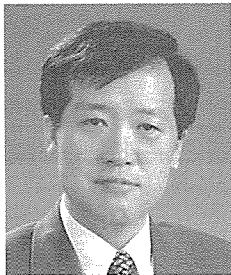


창립 32돌 ... 정회원 1천여명 규합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는 1967년 10월에 창립, 서울대 위상규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과총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창립 32년을 맞은 이 학회는 현재 전회원이 1천52명, 특별회원 27개사, 찬조회원 63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회지를 연 8회 발간하고 연 2회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7년에는 학회창립 30돌을 맞아 우주항공기술 및 산업정책포럼, 항공우주국책사업 보고회, 사진전,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른 바 있다.



柳時隆
〈한국항공우주학회장〉

항공우주학은 인류 최고의 지성과 기술로 이룩한 성과이다. 대기권에서의 비행이든 우주에서의 비행이든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과학적 지식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비행하는 항공기나 우주선을 설계하여 실제로 구현하는 공학기술이 접합되어 범 세계적 분야를 이루고 있다.

시대를 훨씬 뛰어넘은 과학기술의 결집체인 항공우주 분야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능력 밖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지만 초기에

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당시 상황으로서는 벽찬 첨단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조종이나 정비기술을 쌓아 나갔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우주에 관심을 가진 초기 선구자의 대부분이 공군과 연관을 가졌던 분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사명 의식으로 교육과 연구에 정열을 바치며 산업으로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의 초기 성과가 한국항공우주학회의 결성이었다.

67년 발족 ... 초대 회장 위상규씨

한국항공우주학회는 1967년 5월에 항공우주분야의 초기 선구자들이 모여 회칙을 정하고 정부에 학회로 등록하였으며, 그 해 10월에 초대 회장으로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위상규교수를 선임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당시에는 국내의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미약하던 시절이어서 별도의 학회 사무실을 갖지 못하고 회장 소속 대학의 한 구석

에 책상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항공우주학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자 「항공우주학개론」 초판을 발행하였으며 논문집인 「항공우주학회지」를 창간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학회지 창간사에서 느낄 수 있다. “8.15 해방후 독립국가로서 항공공학에 대한 대학과정의 교육이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구미 선진국의 눈부신 발전에 비하여 국내항공계는 공업에 있어 불모지였고, 운항면에서 겨우 명맥이 유지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500MD 헬리콥터 조립사업 시작 등으로 한국에서 항공우주분야의 교육, 연구 및 산업의 구조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원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수단법인화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다음 해에는 학회의 숙원이던 독립사무실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한·불 항공우주 과학발전 심포지엄, 한·러 과학기술의 효율적 교류방안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으며 학술발표회에서도 한·일 초청강연회를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제 1회 서울 에어쇼에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국제 항공우주 테크노 마트를 주최하였다. 1997년에는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항공우주 기술 및 산업정책 포럼, 항공우주 국책사업보고회, 항공우주사진전,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바 있다.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주도형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항공우주 국책사업 보고회에서 발표된 주요 사업으로

는 한국형 훈련기 개발, 중형항공기 개발, 중형과학로켓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및 초음속 훈련기 KTX-II 개발 등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서 학회는 정책방향 제안, 연구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 이후 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후퇴하면서 미래의 방향이 불투명해지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수적인 항공우주 기술개발사업이 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연 2회 학술발표회 ... 논문 1백30편

한국항공우주학회는 현재 정회원 수 1천52명에 특별회원 27개 회사, 찬조회원으로 63개의 도서관이 가입되어 있는 학회로 성장하였다. 학회지를 연 8회 발간하며, 연 2회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춘계 학술발표회는 개최지 근처의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산학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학술발표회의 발표 논문 편수도 매회마다 늘어나 현재는 약 1백30편씩의 논문이 발표된다. 정기 학술발표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단기 기술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상제도로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학회상으로 학술상과 기술상으로 구분되어 주어지며 특히 항공우주교육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미연학술상이 주어진다. 산업체, 연구소, 정부 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현황과 입장을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학술활동 강화는 지식의 증대와 전파를 위하여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또다른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항공우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대학원생의 층이 넓어졌으며 항공우주 연구소를 비롯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항공산업체 부설 연구소 등과 같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도 대폭 늘어난 상태이므로 학술활동의 강화는 연구인력의 확대와 궤를 같이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산업적으로는 항공우주기술의 핵심인 시스템 종합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기술료를 지불하며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다.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군용 외에는 인종이라는 국가간 기술장벽에 부딪쳐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시스템개발 외에는 항공우주부품 제작인데 이 과정에는 독자 연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학술활동과 산업체의 부품 제작과는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항공우주 분야는 방위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제작을 담당하지만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방위체계를 운영하는데도 깊은 지식과 학문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학계, 산업체, 연구소 및 군에서의 활동 영역과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항공우주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항공우주학회가 서로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 한국항공우주학회 창립30주년 기념식장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충

선진국에서 항공우주 분야의 간접적 역할은 시대를 앞서서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선도하는데 있다. 새로운 개념, 한계를 뛰어넘는 요구조건 등은 항공우주 기술에서 시작되어 타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타 산업의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우주분야가 산업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학회는 기술정보의 확산, 한국산업규격 제정, 용어 통일 등과 같은 활동을 더욱 심도 있게 전개할 것이다. 항공우주 관련 지식의 확산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저술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회에서 직접 발행한 책으로는 항공우주학개론과 항공우주용어집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전공에 대해 난해도를 다르게 하여 많은 서적이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회의 출판사업에 대한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항공우주를 통한 꿈과 이상을 수립하도록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이들을 위한 저술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97